

함께 어우러져 놀면 우리는 어느새 친구

불교계 복지관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

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특수학교나 복지 시설에서 따로 교육받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고 체험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어 인성교육면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옥)은 2010년부터 장애청소년 친구들과 함께하는 타악 프로그램 '한소리'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주2회 복지관강당에 모여 타악기와 음악치료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한 뒤 정기적으로 한소리 오케스트라 합주 공연을 연다.

일부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 친구를 두고 있는 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한소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당연하게 서로를 '친구'라 부른다.

조아라 사회복지사는 "연습이 없는 날에는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비장애 청소년들은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한소리 친구들에게 선물물을 따로 챙겨오는 다정함까지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또 한소리를 통해 장애청소년들은 자신감을 얻는다. 조씨는 "한 학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타악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에 참가한 한소리 학생들(좌).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비장애 통합자원봉사단 'WECAN' 학생들(우).

인성교육, 자신감회복에 효과

삼전, 음악활동으로 소통

철산, 봉사활동으로 공감대 형성

강북·영주, 통합계절학교 인기

생은 자신감도 부족하고 무엇이든 '못해 요'라는 말을 먼저 했는데 요즘은 먼저 나서서 연습 전에 다른 아이들을 격려한다"고 설명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은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자원봉사단 'WECAN'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창단한 WECAN은 자원봉사 육구를 충족하고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

년 함께 어울려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이타심을 증진시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매월 2·4주 토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봉사활동을 기획·진행한다. 주로 지역 재가어르신 및 경로당을 방문해 정서지원 및 세대 공감 활동을 하며, 지역축제·지역사회캠페인 등의 사회참여 활동도 진행한다. 또 봉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리더십 교육에도 참가해 즐거운 모임으로 유도한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은 방학마다 장애·비장애 통합계절학교 '친구야 놀자!'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등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2주간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협동미술, 놀이활동, 레크레이션, 요리활동 등을 체험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상호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복지관은 "친구가 놀자'는 개관 이래 총 29회기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장수 인기프로그램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계절학교를 열고 있다. 장애·비장애 아동 1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체험, 요리만들기, 과학실험, 영화관람, 사회적응훈련, 물놀이체험 등을 진행한다.

이나라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군포장애인, 장애인식공모전

군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은 지역주민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식개선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사람사랑'으로 장애인고용, 장애인의 사회적참여, 지역사회에의 긍정적인 변화 등 장애인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4월 5일까지이며 슬로건, 사진, 그림, UCC, 웹툰 등 총 5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공모전 결과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4월 12일에 발표되며, 대상 1명을 비롯해 총 10명에게 120만원



의 상금과 상장이 시상된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군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gunporehab.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품과 함께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031)399-1888 이나라 기자

송산실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



노인일자리 선수를 하고 있는 송산실버문화센터 어르신들.

어르신 398명 일자리 파견 활동

송산실버문화센터(관장 법민)는 2월 28일 398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3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2013년도 송산실버문화센터 노인일자리 총 12개의 사업단으로 공익형(도시

관도우미) 40명, 교육형(희망동지사업, 생명사랑교육단, 1·3세대꿈나무지도자, 노-노강사 문화재해설사, 시니어기자단)192명, 복지형(주거개선사업, 복지시설도우미, 독거노인지킴이, 희망드림지원단, 너나들이실버보듬이) 166명이 의정부 지역사회 내 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에 파견돼 활동할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3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

아라아나레자이(여·9·사지마비)



사지마비를 앓는 레자이(우)와 엄마(좌).

9살인 레자이는 한국인 어머니와 이란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레자이를 얻은 기쁨도 잠시, 출산하자마자 딸아가 선천적 뇌기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부부는 막막했지만 딸을 보며 사랑으로 키우려 다짐했다. 그러나 한창 자랄 나이에 아이의 몸은 작고 움직임이 더디지만 해 부모의 가슴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딸아이에게 정을 주지 않던 남편은 결국 한국을 떠나 이란으로 돌아가 이혼을 요구했다. 어머니는 아빠 없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레자이는 의지대로 동작을 할 수 없어 힘들어 한다. 마비증상도 점점 심해져 한 시도 눈을 뚫 수 없는 상황이다. 어머니는 24시간 딸의 간병으로 허리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을 얻었다. 치료가 시급하지만 아이 간병을 맡길 사람도, 치료비도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아이의 치료비·생활비만으로도 벌써 부채가 3천만 원이나 발생했다. 가정의 수입이랑곤 매일 정부보조금 80만 원이 전부다. 어머니는 향후 20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할 힘이 없어 어깨만 무거워진다.

레자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부분발작과 발달장애 등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언어 및 운동치료, 인지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간단하게 터치만 하면 기부 '끝'

조계종 복지재단, 터치식 기부단말기 시범 운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모금 컨텐츠인 '기부단말기 키오스크'를 3월 7~10일 열린 불교박람회에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터치식 기부단말기 키오스크'란 공공 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 및 무인 단말기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소액의 금액을 바로 후원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불교계 최초

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단말기를 도입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한편 자비나눔의 생활화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재단은 "불교박람회 기간 동안 모인 기부금을 의료사각지대에 무방비로 죽음을 노출돼 있는 라오스 어린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라오스 아동보건센터 건립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이 터치식 기부단말기를 시연하고 있다.



할머니한테 장담고기 배우니 신기해요

할머니·할아버지와 젊은이들이 함께 장을 담그는 행사가 열렸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3월 5일 복지관 옥상에서 '장 담그기 사업'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관 스님, 김영중 총무국장장을 비롯해 어르신과 장담고기 전수받을 종로지역주민들 및 결혼 이주민 여성과 어린이 70여 명이 동참했다. 복지관 어르신들은 궁중음식 중요무형문화재 한복려씨와 함께 전국 팔도에서 만드는 장담고기 비법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했다. 이날 담근 장은 올 하반기 종로구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예정이다. 글=이나라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할머니·할아버지와 젊은이들이 함께 장을 담그는 행사가 열렸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3월 5일 복지관 옥상에서 '장 담그기 사업'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관 스님, 김영중 총무국장장을 비롯해 어르신과 장담고기 전수받을 종로지역주민들 및 결혼 이주민 여성과 어린이 70여 명이 동참했다. 복지관 어르신들은 궁중음식 중요무형문화재 한복려씨와 함께 전국 팔도에서 만드는 장담고기 비법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했다. 이날 담근 장은 올 하반기 종로구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예정이다. 글=이나라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용문선원(龍門禪院) 기공수련 안내

本院은 中國 道家 全真道 용문파 韓國本院입니다. 본 원은 정통 기공 수련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계발을 함께 도모하는 수련을 하는 도량입니다.

수련의 기초과정은 신체의 수련과정으로서,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임맥과 독맥을 타통시키는 小周天 수련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 수련을 통하여 임, 독 二脈을 타통시킨 후 좌선을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즉, 호흡과 氣를 장악함으로써 좌선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상기병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수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한층 더 심도있는 참선수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본원은 오랜 기간의 수련과 준비과정을 거친 후, 이제부터는 외부로 문호를 개방하여 본 수련에 관심있는 분들과 참선수행 과정에서 상기병 등 각종 장애를 겪고 계신 인연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연있는 분들에게서는 본 수련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으시길 기도하며, 관심있는 분들에게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10-3328-3974(유재용)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355-3 용문선원

용문선원장 유재용

통화불교 전강원

대반열반경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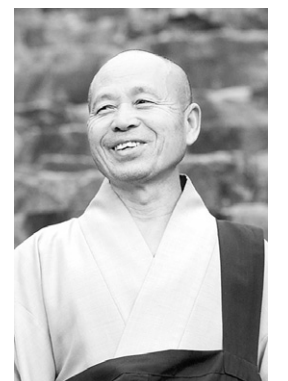
원조 각성 강백 큰스님 직강

40권. 북량(北凉) 시대(A.D. 414~421) 번역. [역] 담무참(曇無讖)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여래의 법신은 상주 불변하는 것이며,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대승 사상의 정수가 들어 있는 경으로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각성큰스님께서는 이번 열반경 강의를 일생 마지막 마무리 한다는 소신의 뜻이 담겨져 있어 더욱 귀한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강좌를 신청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전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 특 전 ① 통화불교 전강원 수료증 ② 전강원 연구회원 자격 부여
- 제출서류 _ 수행이력서, 반명함판사진 1장
- 접수처 _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0-26번지 좋은절
- 기간 _ 4년



강의일시 | 2013년 3월 19일(화) ~
강의시간 | 매일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의장소 | 동국대학교 학명 세미나실
수강료 | 한학기 6개월 (스님 30만원, 재가자 50만원)
모집 | 비구, 비구니, 재가자 선착순
접수기간 | 2013년 3월 11일 ~ 3월 19일(화) 까지
입금계좌 | 국민은행 390401-04-043930 (예금주: 통화불교전강원 최재동)
문의 | 010-4242-7070 (법경) 010-5497-8018 (용화) 011-520-9350 (도행)

추치 | 동국대학교 정각원 주관 | 통화불교 전강원